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8



▶ 49회 예고

아쇼까 순행단 일행은 수나빠란따국 왕과 상인수장의 안내를 받아 숫빠라까 도시에 들어간다.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발달된 도시를 보고 모두 놀란다. 아쇼까는 지난번에 잃었던 정찰조 군사들을 되찾고는 더욱 기뻐한다.

아쇼까, 순행 길에 해적 소탕하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의 보고를 받고는 분기탱천했다. 사바르마티강 강변 해적촌에서 겨우 탈출해온 선봉대장을 나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손상한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분개했다. 선봉대장은 숫빠라까 항구까지 정찰하지 못하고 돌아온 자신을 자책했다. 숫빠라까 항구까지 가서 수나빠란따국 왕을 만나고 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쇼까는 측근심복인 늙은 선봉대장을 위로했다.

"다른 사람보다 대장을 잃었다면 나는 실망이 더 컸을 것이오. 지금 대장이 내 옆에 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오."

"부왕님이시여, 예부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장은 한밤중에 경계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버린 실수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계를 섰던 정찰조 군사들의 잘못이 크오. 그런데 정찰조 군사들은 이미 해적들에 의해 대가를 치렀소."

"아닙니다. 소장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소장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부왕님을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 이번 정찰이 실패한 것 같지만 사바르마티강 강변에 해적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요."

아쇼까가 선봉대장의 정찰 실패를 문책하기는커녕 용서해주자 경비대장과 호위대장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선봉대장님, 소장이 더 잘 모시겠습니다. 소장은 대장님께 아직도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베디샤나가르 지형정찰 때 저는 호위대장으로서 작전상 용의주도하지 못했는데 대장님께서는 치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왕님 곁에 더 계셔야 합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가 주재한 대장회의에서 지형정찰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임되었다. 다만 순행시기 문제는 대장들끼리 이견이 생겼다. 호위대장은 건기가 곧 끝나니 다음해 건기 때로 순행을 늦추자고 말했다.

"지금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하신다면 돌아오실 때는 혹서기일 것입니다. 혹서기 더위는 맹수보다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밤에만 행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며칠 만에 부왕님과 군사들은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이동을 빠르게만 한다면 혹서기가 막 시작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병만 차출해서 순행하면 얼마든지 이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가 시작하기 전에 웃자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봉대장께서 발견하신 해적촌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순행 길에 해적촌을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아쇼까는 해적촌을 불살라 없애버리자는 경비대장의 말에 공감했다. 정찰조 군사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지형정찰을 방해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수나빠란따국은 마우리아국에 복속된 나라인 까닭에 아쇼까 마음대로 중죄인을 처형하고 재산몰수를 명할 수 있었다.

순행하기 좋은 건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쇼까는 순행을 서둘렀다. 늙은 선봉대장은 제외시켰다. 기병 군사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므로 늙은 선봉대장이 동행하기는 무리였다. 대신 선봉대장은 웃자인에 남아 경비대장의 임무를 대리케 했다. 경비대장은 하인 길잡이를 앞세우고 정찰조로 나서고, 호위대장의 군사는 아쇼까 부왕을 전후에서 호위하기로 했다. 순행 길에 동행할 데바 상인수장도 선봉대장의 정찰조 군사들이 해적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데바는 아쇼까를 만나 건의했다.

"저의 산치 절에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계십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문입니다. 사문을 데리고 가시면 순행 길이 무사할 것입니다."

"사문이 기도해서 순행 길이 무사하다면 마땅히 데리고 가야지요."

마침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비 별궁으로 마힌다를 축원해 주러 와 있었다. 데바는 즉시 데비 별궁으로 가서 비베깐난다 사문을 만났다. 그런데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바가 부탁하자 선선히 허락했다.

"수나빠란따국으로 간다구요? 언젠가 소승이 꼭 순례하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잘 됐습니다."

"소승은 고타마 붓다의 제자 뿐나 사문님이 교화를 펼쳤던 수나빠란따국으로 가서 여생을 마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바 상인수장님을 따라 내 고국 앙가국 짬빠에서 산치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뿐나 사문은 수나빠란따국 출신이었습니까?"

"수나빠란따국 숫빠라까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뿐나 사문님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불법에 귀의시킨 분입니다."

데바와 비베깐난다 사문 간에 오간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은 데바 부인이 말했다.

"사문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무역 일도 잘 성사될 거예요. 저는 사문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데바 부인이 고마워하자 비베깐난다 사문이 두 손을 이마까지 올리며 합장했다. 데비 역시 순행 길에 비베깐난다 사문이 동행한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다. 남편 아쇼까 부왕과 아버지 데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아쇼까는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떠났다. 지난번에 지형정찰을 떠났던 하인이 다시 길잡이를 했다. 하인 길잡이는 경비대장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렸다. 물론 물소가죽으로 만든 말고삐는 그가 잡았다. 아쇼까 부왕은 일산을 펴지 않은 채 날쌘 코끼리를 탔다. 부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산이지만 속도를 내서 달리려면 펼 수 없었다.



아쇼까 순행 일행은 밤잠을 줄이면서 서남쪽으로 이동했다. 몇 개의 강을 건너자 수나빠란따국이 나왔다. 사막과 황무지가 이어지고, 열풍이 수시로 부는 나라였다. 하인 길잡이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큰 강이 나오고 나무와 풀이 자라는 들판이 나옵니다요. 지금 부는 열풍은 혹서기가 되면 흑풍으로 바뀝죠."

"혹서기는 피해야 되겠군."

"그렇습죠. 혹서기에는 풀들이 말라버리고 들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요."

멀리 나무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사바르마티강이 황무지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하인 길잡이는 스스로 놀랐다. 밤낮 없이 달린 끝에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바르마티강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인 길잡이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요. 해적촌이 저 위쪽에 있습죠."

"지난번에 우리 군사를 살상한 해적들이 사는 마을이군."

"그렇습죠."

"숫빠라까 왕은 어째서 해적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가?"

"상인들이 먼 바다로 나갈 때 해적들이 길잡이도 돼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들에게 터를 내준 것 같습니다요."

"서로 돕고 사는 셈이군. 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니 응징을 받아 마땅하지."

경비대장은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순행 군사들을 멈추게 했다. 그런 뒤 아쇼까에게 달려가 말에서 내린 뒤 보고했다. 아쇼까 뒤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호위대장도 걸어왔다. 아쇼까는 코끼리에 탄 채 보고를 받았다.

"이곳에서 숙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면 해적촌이 가까우니 위험합니다."

"나는 해적촌에서 자고 싶네."

호위대장이 말했다.

"지난번에 우리 군사가 당한 곳입니다. 또 당할 수 없습니다."

"대장은 생각이 짧소.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리면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소?"

"예, 알겠습니다."

아쇼까는 즉시 해적촌 소탕작전을 짰다. 한밤중까지 군사들을 촘촘히 횡대로 배치한 뒤 해적촌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해적들을 몰살시킨다는 소탕전이었다.

"해적 가족,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시오."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쇼까는 임시숙영지에 비베깐난다 사문, 데바 상인수장과 함께 남기로 했다. 해가 지자 기온이 빠르게 떨어졌다. 작전 중이므로 화톳불을 피울 수 없었다. 아쇼까와 비베깐난다 사문은 긴 쇼올을 몸에 둘렀다. 데바는 벙거지 같은 모자를 눌러쓰고 겉옷을 하나 더 껴입었다. 아쇼까를 지키는 호위군사들은 임시숙영지 사방에서 경계를 섰다. 달이 중천에 떠서 달빛을 뿌렸다. 순찰을 도는 호위군사 조장의 발걸음 소리가 자박자박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곤 했다.

이윽고 해적촌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호위군사 조장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부왕님, 해적촌 소탕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나도 불길을 보고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임을 알았네."

아쇼까의 예상대로 해적촌 소탕작전은 한 치의 틈도 없었다. 경비대장의 군사들이 마을에 잠입해 불을 질렀고, 호위대장의 군사들은 해적촌 밖에서 은폐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해적들을 잡아죽였다. 해적들은 불길에 타죽거나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호위대장 군사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졌다. 조장 한 명은 해적들의 사지를 찢어 나뭇가지에 걸었다.

수십 채의 해적움막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타다 만 시체들은 노린내를 심하게 풍겼다. 수색은 달빛이 밝아서 용이했다. 그러나 경비대장과 호위대장 군사들은 수색을 하려다가 중지했다. 잔불까지 꺼진 잿더미이지만 열기가 확확 끼쳤다. 호위대장이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몰살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불에 타 죽은 것 같소. 부왕님께 보고하고 오겠소."

"소장은 여기서 더 수색을 하고 있겠습니다."

경비대장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쇼까가 머물고 있는 임시숙영지로 달려갔다. 아쇼까의 임시숙영지도 몇 개의 작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아쇼까가 군사들에게 화톳불을 피워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과 함께 화톳불을 쬐고 있던 아쇼까가 경비대장을 맞았다. 경비대장이 보고했다.

"부왕님이시여, 이제 해적촌으로 가셔도 됩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았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응징했습니다."

"웃자인으로 돌아가면 포상을 하겠네."

그러자 옆에 있던 데바가 말했다.

"포상금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순행 군사들이 강변에 거주하는 해적을 소탕해주었으니 상인수장으로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적은 바다에만 있지 않았다. 무리지어 땅으로 올라와 우기와 건기를 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대상들의 물건을 갈취하는 도둑떼와 다를 바 없었다.

"하하. 그래주시면 군사들의 사기가 더 오를 것이오. 숫빠라까에서 그곳 상인수장을 만나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바라오."

"부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아쇼까는 숙영지를 해적촌 부근 강가로 옮기라고 명했다. 군사들의 수통에 물을 채워야 했고 내일 아침 끼니를 해결하려면 강물이 필요해서였다. 잠시 후 아쇼까 순행 일행은 사바르마티강 강변으로 숙영지를 이동했다.〈계속〉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며
임인년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견불사 · 실상선원 · 사천왕사 / 부산포교원 대각정사 · 대법화원
대풍범각 · 사부대중 합장

YouTube 대풍범각TV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전화 055)352-3104